



추위 녹인 공연 열기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김장훈·싸이의 원타치' 공연이 지난 26일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5천여명의 관객들은 싸이, 김장훈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2009년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돌아 본 2009

4 흔들린 '풀뿌리 정치'

비리·파행...일당 독주의 오만

2009년 한 해도 광주·전남 지방 정치는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에는 크게 부족했다는 평가다. 민선 4기 들어 전남지역 시장·군수 3명 중 1명이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 혐의로 중도하차했고, 광주시의회도 전체 의원 19명 중 6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남도의회 추경정예예산안 처리 파행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질 태세다. 기초의회 역시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 간 갈등으로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현직 의장이 농협조합장에 출마해 빈축을 샀던 광주 북구의회가 이번엔 의원 간 내분으로 후임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고, 남구의회 모 의원은 500만원이 든 돈 상자가 배달사고를 일으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또 지역민들은 신종플루 여파로 집밖을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광주 북구의회와 서구의회 의원들

단체장 중도하차·의회는 싸움질 공천 혁신 지역정치 구조 개선을

은 싱가포르와 동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왔다. 서구의회 한 의원은 해외연수 후 신종플루에 감염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 지역민과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처럼 선출직들 스스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원인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의 오만이 부른 잘못된 공천에 있다. 이는 지난 4·29재보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장흥 광역의원과 광주 서구·영암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단독 입후보한 영암을 제외하고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민노당 후보에게 완패했다. 광주 서구의 경우 민주당 소속의

원들의 잇따른 불법·부정 행위에 의해 같은 곳에서 세번째 선거를 치르게 만든 원죄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했고, 장흥은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부른 자중지란으로 자멸했다. 지역의 변화된 민심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후보자 공천이 패착을 불러온 것이다.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담보로 해야 할 공천이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친소관계 등에 좌우되면서 표심과는 멀어졌다. 또 일당 독주체제인 지역정치 구조에 대한 염증과 함께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실망감도 겹친 결과였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곧잘 성

립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으로 나오더라도 검증된 후보가 아니라면 당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재보선을 겪으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구태와 악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풀뿌리 정치체제와 행정을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변화와 혁신의 바로미터는 '텃밭 공천'에 있다. 텃밭에 좋은 씨를 뿌려야 튼실한 열매가 맺기 마련이다. 여기에 지역민들은 민주당의 체질과 시스템을 바꿔 민주개혁세력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유지이기도 하다. 전제는 민주당의 기록된 포기다. 이홍길 전 5·18재단 이사장은 "내부의 자질한 정치경쟁에서 벗어나 민주세력의 직통을 사수하기 위한 명예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47조 규모 UAE 원전 수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됐다

美·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 제치고...기술·외교력의 승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첫 수출은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건설·운영하는 기술력은 공학기술의 총아라고 할 만큼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첨단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우리나라에 원자력 기술을 전수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긴 것은 과학 기술력뿐 아니라 외교력이 뒷받침된 쾌거라는 평가다. 원자력 기술은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했던 중점 과제였다. 우리나라는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을 시작으로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공포, 원자력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초기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 국가에서 전해주는 기술을 배우는 '신생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꾸준한 정부의 지원과 우수한 두뇌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급성장, 50년만에 원자력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설계부터 가동까지 '원 스톱'으로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국이 된 UAE는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 있는 나라다. 올해 초 수년간 공을 들인 고등훈련기 T-50 입찰 경쟁에서 이탈리아에 밀려 아쉽게 탈락한 곳이 바로 UAE다. 고등훈련기나 원전 수출은 수조~수십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다 수입국의 안보, 산업 인프라와 직결되는 탓에 수출 뒤에도 꾸준한 양국 간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한 민간 업체가 '영업'으로 성사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대형 국제 입찰이 시작되면 '기술력보다는 국력'이라는 속설이 공공연히 사실처럼 여겨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UAE 원전 입찰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했던 미국과 프랑스는 모두 UAE와 경제분야 뿐 아니라 군사기지가 UAE에 있을 정도로 밀접한 국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부처 간 혼선때문으로 알려진 고등훈련기 T-50 수출 실패가 원전 수출엔 오히려 '약'이 된 느낌이다.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원전 계약 규모는 직접 건설 비용이 200억 달러, 완공 뒤 운영, 연료봉 공급, 폐기물 시설 등 후속 부문이 200억 달러 등 모두 400억 달러로 추정된다. 또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만 해도 11만명으로 예상돼 관련 기술 인력이 대규모로 UAE로 향할 전망이다. 이런 정량적인 효과 외에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라는 영예를 안게 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상승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협뉴스

지자체 계약공무원 처우 나아진다

육아휴직 늘리고 채용 절차 간소화

이르면 새해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되고 채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계약직 공무원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이 같은 처우 개선책을 담은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임기의 계약직 여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이 계약 잔여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가 일수도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직보다 이틀을 더 주고, 2년 이상이면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한국갤럽 초가량 실외에서 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3~4명에 달해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령 제정이 추진된다.

성인 실외 보행시간 하루 평균 78분

'보행자 권리·안전 보장 법안' 추진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평균 78분36초가량 실외에서 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한국갤럽 초가량 실외에서 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3~4명에 달해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령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한국갤럽 초가량 실외에서 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3~4명에 달해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령 제정이 추진된다.

Advertisement for Han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UST) featuring a clock, a person with a briefcase, and a lightbulb. Text includes '대학선택도 전략이다', '2010학년도 신입·편입생 모집', and contact information: '062)973-5100'.